

IEC, 전기전자제품 및 시스템의 환경표준 제정 중

6대 규제물질 수준 측정표준 제정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는 2008년 3월 초에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두종류의 브롬계 난연제 등 6대 규제물질 수준 측정에 대한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규격의 개발 및 유지, 파생규격 분류방법, 측정법의 다양화, 측정 가능 물질수의 증가방법 등에 대해 논의되었다.

이에 앞서, 2007년 파리에서 개최된 TC111회의에서 6대물질 수준의 측정에 대한 초안을 개발한 바 있다.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설계표준 제정

IEC는 3월23일 최종적으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설계에 대한 초안을 투표용 위원회안(CDV, Committee Draft for Vote)으로 기술위원회에 회부하여 투표할 것에 동의하였다. 이 초안 규격은 모든 제조업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사항인 제품수명주기(Life Cycle)의 개념을 담고 있다.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제품의 설계 표준을 개발하는 관련 기술 위원회와 분과 위원회가 동 규격을 참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물질선언 표준 제정

전기전자기기에 대한 물질선언을 다루고 있으며 선언될 물질들에 대한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와 그런 데이

터의 교환방법을 유통망에 제공할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환경적인 측면의 용어집 표준화

표준 용어, 정의, 약어 및 혼합약어를 개발 중이다. 환경 용어가 기술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간의 협의없이 정의되어 왔기때문에 현재 용어에 대한 혼란이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용어 표준은 통일성과 일관성을 보장할 것이다.

샘플링에 대한 지침의 표준화

6개의 규제물질을 시험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샘플을 마련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침을 제공하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양서(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중이다.

재활용 문제

전기전자 산업에서 중요하게 될 재활용 문제도 고려중이다. 재활용, 재사용, 재생에 대한 범위를 정의하기 위해 3월말 회의를 가졌으며 신규작업 아이템 제안을 기획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다. 효과적인 재활용은 설계에 대한 세심한 고려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질 선언과 환경을 고려한 설계 프로젝트와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한다. IEC는 에코디자인, 에너지 효율, 물질 효율 및 위험한 화학물질 제한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주요 이슈는 재사용, 재생, 방출, 환경 효율성, 에너지 효율성, 자원 효율성 등이 될 것이다.